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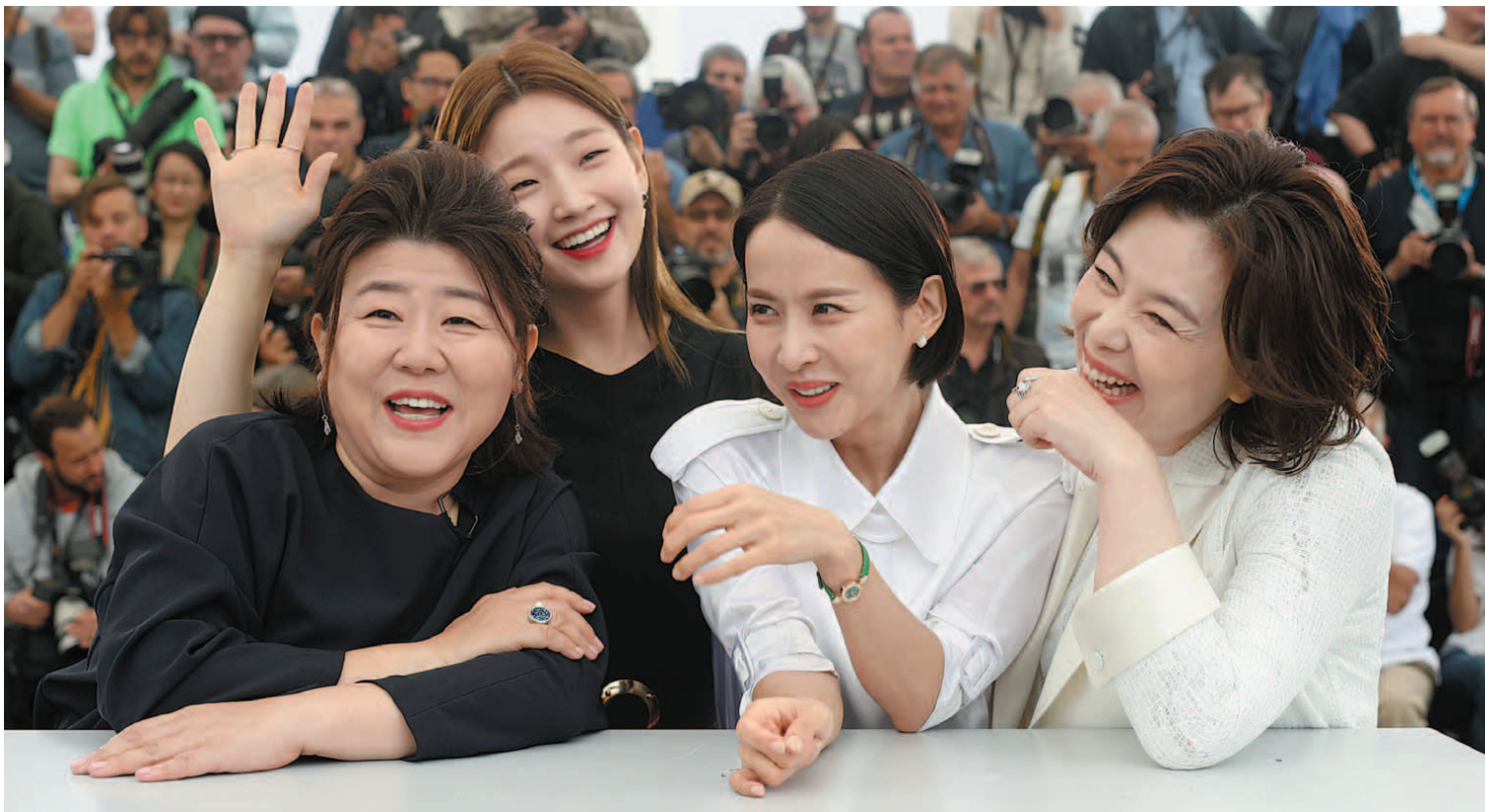
봉준호 “‘기생충’은 욕망의 힘으로 만든 영화”

“변태적 스토리 연기해줘서 감사”
송강호 “예술가 봉준호의 진화”
이선균 “아름다운 패키지 여행”

“모든 창작자가 그렇겠지만 감독이 믿을 건 욕망 밖에 없다. 목사가 성경에 의지하고, 변호사가 법전에 의지하듯. 그러다 안 풀리면 히치콕의 영화를 다시 보고, 김기영 감독의 인터뷰도 찾아 읽곤 한다.”

22일 오후 5시45분(이하 한국시간) 칸 국제영화제 메인 행사장인 팔레 데 페스티벌에서 열린 ‘기생충’ 공식 기자회견에서 봉준호 감독은 이번 작품을 만들도록 자신을 이끈 힘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나의 본업적인 욕구에 따라 장르를 보여주는 ‘영화적 흥분’을 좋아한다”며 “나는 장르영화 감독이지만 때론 장르를 잘 따르지 않는 감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13년 연출한 ‘설국열차’에서 앞간으로 나아가려는 이들의 모습을 수평적인 방식으로 그리며 계급문제를 다룬 감독은 이번엔 2층 대저택을 주요 배경 삼아 수직적인 구조의 계단을 통해 같은 화두를 다시 이야기한다. 봉 감독은 “‘기생충’은 90%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고, 그 중 60%가 2층 구조의 부잣집에서 일어난다”며 “계단이 자주 등장해 우리는 이 영화를 ‘계단 시네마’라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기영 감독의 ‘하녀’와 ‘충녀’를 보면서 계단의 이미지와 기운을 얻었다고도 밝힌 그는 극중 송강호 가족이 살아가는 반지하방의 배경



봉준호의 여인들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인 영화 ‘기생충’의 주역 이정은, 박소담, 조여정, 장혜진(왼쪽부터)이 22일(한국시간) 오후 영화제 메인 행사장인 팔레 데 페스티벌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앞서 환한 미소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칸(프랑스) | AP·뉴스

에 관해 “영어나 불어로 번역할 단어가 딱히 없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공간인 ‘반지하’를 통해 지금껏 서양영화에선 보기 어려운 설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과 함께 한 네 번째 작업을 묻는 질문에 “작가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이 작품을 통해 한 순간도 빠짐없이 드러난다”며 “예술가 봉준호의 진화이자 한국영화의 성숙함이 ‘기생충’을 통해 표현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시공간을

메워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작업이었다”고 돌이켰다.

기자회견에 나선 다른 배우들도 이구동성으로 봉준호 감독과 맞춘 호흡이 새로운 연기를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이선균은 “가이드 봉준호가 이끄는 아름다운 패키지 여행을 함께 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자 봉준호 감독은 “편하게 마음껏 작업할 수 있던 건 배우들의 공”이라며 “내가 쓰는 기이하고 변태적인 스토리가 배우들을 통해 사실적으로 표현됐다”고 화

답했다.

기발한 질문도 나왔다. 중국 매체의 한 기자는 영화에서 송강호가 풍기는 ‘반지하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선균의 모습을 들면서 ‘메소드 연기를 위해 실제로 냄새를 풍기면서 촬영했느냐’는 질문을 송강호에게 던졌다. 봉준호 감독은 크게 웃으면서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라고 했고, 송강호는 질세라 “요즘은 향수를 조금씩 뿌리고 다니게 됐다”고 받아쳐 웃음을 안겼다.

칸(프랑스) | gott1024@donga.com

칸 이모저모

틸다 스윈튼, 봉준호와 ‘의리’ 과시



틸다 스윈튼

●…영국배우 틸다 스윈튼이 22일(이하 한국시간) ‘기생충’ 공식 상영장에 깜짝 등장했다. 그는 봉준호 감독과 2013년 ‘설국열차’를 함께 했고, 2017년 ‘옥자’까지 작업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개막작인 ‘데드 돈트 다이’의 주인공이기도 한 틸다 스윈튼은 봉준호

감독을 응원하고자 상영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뒷좌석에 앉은 틸다 스윈튼을 힐끗 끌어안았다.

마동석, 마침내 칸 입성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상영하는 영화 ‘악인전’의 주연 마동석이 22일 칸에 입성했다. 그의 칸 국제영화제 참여는 처음이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김무열, 김성규와 함께 온 마동석은 23일 오전 5시30분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악인전’을 공개한다. 2016년 칸에서 ‘부산행’을 공개

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그가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쿠엔틴 타란티노까지 “스포 금지”

●…또 다시 ‘스포일러 금지령’이 내려졌다. 봉준호 감독에 이어 이번에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나섰다.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월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선보인 감독은 영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칸에서 작품을 나눌 수 있어 긴장된다”는 소감과 더불어 “앞으로 영화를 볼 관객을 고려해 어떤 것도 누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쟁부문 초청작 ‘월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왼쪽)과 부인 다니엘라 피.

칸(프랑스) | AP·뉴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천년만년 끝에만든
기찬메일 메일소바

매출·매뉴·상권 인건비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매상에 고민이 있으신분 **기찬메일국수**로 간편한 바뀐 업종변경하여 대박나시고 성공하세요!
불경기가 없는, 계절을 타지않는 **기찬메일국수**는 맛으로 소문난 외식사업은 불황을 모릅니다. (홈+레이아웃+배달)

유행을 타지않는 프랜차이즈 - 기찬메일국수

기찬메일국수는 로열티만 받는 여타의 프랜차이즈와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대표 메일국수 명장 박현철 대표의 **25년산 장사 노하우**를 담아,
최상의 맛과 최고의 서비스를 완성한 기찬메일국수는
시원한 메일국수처럼 시원한 성공을 보장해 드립니다.

실제의 매출을 보고 직접 판단하십시오. **일매출 500만원 돌파!**

대표메뉴



기찬냉메일국수



기찬비빔메일국수



기찬온메일국수



기찬비빔국수

인기메뉴



기찬소고기해장국



기찬왕갈비탕



기찬공국수



기찬메일전병



기찬오색전골



기찬뽕탕



기찬돈까스



기찬편만두

10호점까지 가맹비.교육비 무료!

업종변경, 지금이 찬스입니다!

불경기엔 역시!! 빠른회전율과 적은인원으로도 충분히 운영
궁금없는 손님과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하는 다양한 메뉴

기존 시설로 최대한 활용하시고 최소 금액 오픈/무이자 대출 500 ~ 2,000만원 = 별면서 갚으십시오.

- 경남대학교 프랜차이즈 학과와 협업! 전문적인 프랜차이즈 경영 교육 실시!
오직 기찬메일국수가 유일합니다.
- 놀라운 조리과정! 하루만 교육받으시면 당신도 요리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허받은 육수와 특허받은 양념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업중인 매장안내



NH농협 영암본점



NH농협 양재 하나로 미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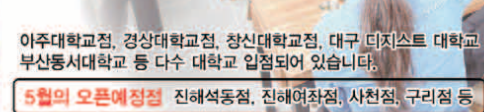
공주동학사점



포항오현점



진북남원점



아주대학교점, 경성대학교점, 창신대학교점, 대구 민지스트 대학교
부산통신대학교 등 다수 대학교 입점되어 있습니다.
5월의 오픈예정점 진해석동점, 진해미점점, 사천점, 구리점 등

기찬메일 사업본부 055) 323-2092

메일영농조합법인 : 010) 3559-2021, 010) 4119-4118